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집 가이드안내 투어 번역문 - 2003년 11월 8일 개정판

거실 (Living Room)

이 집은 1851년 해양건축가이자 난파선 구조원인 Asa Tift (에이사 티프트)라는 사람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집이 해밍웨이의 소유가 된 것은 그후 1931년의 일이입니다. 투어를 안내하는 동안, 저는 해밍웨이를 헨(Hem)이라 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에 살았을 때 그의 애칭이 헨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헨과 그의 가족이 사용했던 가구들, 그리고 정원, 유명한 고양이들을 둘러보면서 이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있는 고양이들은 헨이 소유했던 고양이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수의 고양이가 발가락 한개를 더 갖고 있는데, (전문용어: Polydactyl) 고양이에 대해선 나중에 그들이 보일 때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실에는 헨의 부인, 폴린(Pauline)이 파리에서 있었을 때 모아온 가구류들이 많이 보입니다. 헨과 폴린이 이 집을 샀을 때 이곳 키웨스트로 파리에서부터 선적해온 것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천정에 팬(Ceiling Fan)이 달려되어 있었는데 폴린이 가져온 상들리에로 대체된 것입니다. 폴린이 갖고온 수납함(chest-on-chest)은 17세기 스페인 양식으로서 서카시아산 호두나무(Circassian Walnut)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 수납함의 뚜껑이 떼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고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부유층의 스페인 사람들은 여행시에 중요한 문서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폴린은 이것을 책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헨은 예술을 사랑했고, 저쪽 벽에 파파(Papa, 헨의 또 다른 애칭)의 수집품 중 하나인 화가 유진 오토(Eugene Otto)의 작품 '세이트 폴 교회풍경'이 보입니다. 또 커다란 석판화에는 헨의 오른쪽으로 그레고리오 푸엔테스(Gregorio Fuentes)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는 쿠바에서 20년 이상을 파파의 뉘시보트 "Pilar"에서 요리사겸 친구로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다음은, 복도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가면서 문옆에 놓여진 빨간 가죽 카디널 의자를 주목해주세요. "The Fifth Column"-헨의 유일한 장편극-이라는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소도구로 쓰였었다고 보고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투어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Dining Room)

이 식탁은 폴린의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스페니쉬 호두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들리에는 폴린의 수집품 중 가장 주된 것입니다. 이태리 베니스 근처에 있는 무라노라는 섬에서 만들어졌으며 유리를 직접 불어서 만든 것입니다. 두개의 자기제품 조각도 이태리에서 온 것입니다.

희한하게 생긴 철제품 (스페니쉬 술병 금고, 정확한 명칭은 "tantalus" 탄탈러스). 이것은 희귀한 빈티지 술병을 보관하는 금고입니다.

그 술병금고 위로는, 해밍웨이의 개인사가 엿보이는 사진들입니다. 헨은 일리노이주, Oak Park에서 1899년에 출생하였고, 1961년 아이다호주, Ketchum이라는 도시에서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61년간의 생애동안 그는 인생을 한마디로 가득채우며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큰짐승들 사냥도 해봤고 멕시코만에서 낚시를 즐겼으며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기도 하고 전쟁터에선 종군기자로 활약하였습니다. 소설분야에선 풀리처상을 수상했고 문학부문에서 노벨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사진에는 그의 4 명의 아내가 보입니다. 해들리(Hadley), 폴린(Pauline), 마르타(Martha), 그리고 매리(Mary). 처음 3 명의 부인과는 이혼으로 끝났고 마지막 Mary는 아이다호에서 헨이 죽을 때 같이 있었던 부인입니다. 현재 4 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으로는 헨과 폴린사이에서 난 두 아들 패트릭(Patrick)과 그레고리(Gregory)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사진에서 그레고리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고양이 ‘Snow White’을 안고 있습니다. 헨은 첫번째 부인 해들리 사이에서 난 잭(Jack)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잭은 여배우 매리얼 헤밍웨이(Mariel Hemingway)와 고(考) 마르고 헤밍웨이(Margaux Hemingway)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헨의 세 아들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들이 패트릭이고 그는 Montana에서 살고 있습니다.

헨과 폴린이 이혼한 후, 헨은 쿠바에서 정착을 했고 거기서 그의 애칭 “Papa”로 불리웠으며 1959년 쿠바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쿠바에서 억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1961년 “Bay of Pigs” 침공이 실패하면서 다시는 쿠바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951년 폴린이 사망한 후, 이 집은 가구가 다 배치된채로 세를 놓았고 1961년 헤밍웨이 사망 이후, 키웨스트지역의 사업녀 Mrs. 베니스 딕슨(Bernice Dickson)에게로 이집이 팔렸습니다. 그녀는 1964년에 이 집을 박물관으로 개장하기 전까지 이 본채에서 살았고 그 이후엔 뒷채에서 살았습니다. 1968년에 국가 유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늘날까지 Mrs. Dickson 가족의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침식사공간, 부엌, 복도 (Breakfast Room, Kitchen, and Hallway)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폴린이 생각해낸 아침식사용 조그만 방을 보게됩니다. 그곳에는 폴린이 GE(제너럴 일렉트릭) 냉장고를 갖춰 설계한 현대식 부엌이 보일 것입니다. 원래, 이 집의 부엌은 이 본채에서 멀어진 건물에 있었고 지금의 부엌은 그냥 뒷방에 불과 했습니다. 폴린은 장식용 타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벽에 포루투갈과 스페인 타일을 부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면서 Deacon's Bench 가 보입니다. 위층의 안방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계단을 다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안방(Master Bedroom)

이 큰 침대는 두개의 트윈베드를 합친 것입니다. 폴린이 태어난 세인트 루이스에서 직접 오더해 갖고온 것입니다. 머리쪽의 헤드보드가 바로 Deacon's bench 와 세트입니다. 실은 스페인 수도원의 문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침대위에 있는 그림은 헨리 포크너(Henry Faulkner)의 작품 사본이며, 원본은 1974년 박물관에 귀속되었습니다. 이 화가는 동물을 사랑했으며 Alice라는 염소를 애완동물로 갖고 있었는데 그의 작품안에다가 앤리스를 살짝 넣었습니다.(앤리스를 가리킴) 헨이 이곳에서 살았을 때는 오리지널 작품이 걸려있었고 작품명은 “The Farm”. 파리에서 직접 화가로부터 구입을 했으며 오리지널은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Gallery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작은 의자는 세트이고 스페인산입니다.

멕시코산 수납함(chest-on-chest) 위에는 과블로 피카소가 헨에게 선물한 유명한 고양이 조각의 복제품입니다. 오리지널 고양이 조각은 지하에서 발견되었는데 헨의 첫부인 해들리가 1974년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 스토리를 설명해준 것입니다. 오리지널은 도둑에 의해 손상되었고 안타깝게도 수리 불가능의 상태이며 이 복제품은 해밍웨이 단체의 멤버인밥 올린(Bob Orlin)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의 방으로 가기 전에 체증계가 갖춰진 안방 화장실을 보게 됩니다. 헨은 일생동안 몸무게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아들방(Boys' Room)

이곳은 패트릭과 그레고리의 방입니다. 지금은 헨의 인생전반에 걸친 추억과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수납장에는 그의 소설들의 초판들이 보이고, 서부여행에서 갖고온 부츠들과 말안장이 있습니다. 벽에는 오스트리아 Schruns라는 도시에서 스케이팅 헨의 모습이 보이고, 쿠바에서 그가 잡은 커다란 Marlin(생선의 한종류)과 포즈를 잡고있는 헨이 보입니다. 여행용타자기를 열심히 치고 있는 헨도 보입니다. 이쪽 벽에는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적십자 유니폼을 입고있는 아주 젊은 시절의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이태리에서 부상을 입고 그곳에서 아그네스 본 쿠로프스키(Agnes von Kurowsky)라는 간호원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는 헨의 구혼에 "No"라고 대답했고 그후 10년 후 그 경험을 살려 소설 "무기여 잘있거라(A Farewell to Arms)"를 쓰게 됩니다. 유리로 된 이 수납장에 있는 것은 헨이 어렸을적 미시간 북부, Walloon으로 여행을 가서 갖고온 기념품들이고 헨의 친구, 스텐리 덱스터(Stanley Dexter, 메사추세츠에서 온 난파 구조선 선장)가 헨에게 준 6개의 발가락을 가진 고양이를 처음 소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헨은 스텐리를 이곳 키웨스트에 있는 유명한 바(Bar) Sloppy Joe's Bar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방은 작은방이라서 이 투어가 끝난 후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구경하셔도 됩니다. 다음방은 패트릭과 그레고리의 유모인 Miss 에이다 스텠(Ada Stern)의 방입니다.

유모의 방(Nursemaid's Room)

벽난로가 있는 이 방은 아이들이 학교간 시간에는 바느질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벽난로 위에 선반은 이태리 대리석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진들은 해밍웨이의 유아시절부터 말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곳에 살았을 당시의 사진들을 보십시오. 그는 30대였고 그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얀선반은 헨의 원고수납함입니다. 그가 진행중이던 작품들을 그곳에 보관하였습니다. 해밍웨이가 이집을 구입했을 시에는 이곳엔 수도꼭지가 연결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린이 아르데코풍의 타일바닥을 깔았습니다. 화장실 천정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내수도시설을 위한 빗물을 이용한 물탱크가 이 지붕에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이 집이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몇 안되는 집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전에 복도에 보이는 책장에 대해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헨의 서재에 실제로 있었던 책들입니다. 투어가 끝난 후 다시 돌아오셔서 헨이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안방문을 지나셔서 베란다를 통해 나가면 바깥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집의 열대정원의 멋진 모습과 길맞은편에 있는 등대도 감상하시고 밀의 쟁 커다란 무화과나무(Weeping Fig Tree) 밑에서

만나겠습니다.(투어가이드를 따라가시고, 계단을 내려갈때 머리가 부딪힐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물탱크와 작업실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곳의 고양이들은 모두 이름이 다 있으며 정기검진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서있는 이 나무는 Weeping Fig 나무이고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을때 심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벽돌들은 시에서 길을 깔때 불티모어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헨은 1935년에 그 벽돌들은 사서 자신의 집둘레의 벽을 쌓았습니다. 꿈 아이러니 한것은 헨은 그 당시 관광객들이 쇠사슬로 얹혀진 울타리사이로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들여다 보는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안뜰 밑에는 실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물탱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키웨스트는 1940년대에 미해군이 미국 본토로부터 이곳까지 파이프를 깔면서 물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멘트위에 고양이 발자국도 많이 보이고 너구리발자국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Carriage House"(마차보관하는 곳) 라고 불리웁니다만 실은 단지 물품저장용 건물입니다. 헨은 이층에 자신의 작업실을 지었습니다. 현재는 그곳으로 가기위해 계단이 있지만 헨이 살았을 당시엔 옛 취사실건물(부엌, old cookhouse building)에서 이곳까지 배란다 난간을 설치해 지나다녔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에 글을 썼기때문에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이곳으로 건너올수가 있었습니다. 옛취사실건물과 난간은 1948년 허리케인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그가 사용했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끼던 타자기, 쿠바시기(Cigar)제조자의 의자, 그가 모아오던 기념품들 - 이들 모두, 있었던 자리 그대로입니다. 이 작업실에서 그는 오후의 죽음(Death in the Afternoon), 아프리카의 푸른언덕(Green Hills of Africa), 가진자와 못가진자(To Have and Have Not),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를 썼고 또한 수많은 단편소설들, 킬리만자로의 눈(The Snows of Kilimanjaro), The Short, Happy Life of Francis Macomber 등도 썼습니다. 올라가셔서 작업실환경을 지금 보셔도 좋고 투어가 끝난후 다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올라가실땐 난간을 꼭 잡으세요. 다음은 해밍웨이의 수영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수영장

이 수영장은 키웨스트에서 처음으로 개인주택안에 지어진 수영장입니다. 길이는 65 피트(약 20 미터)로 현재까지도 키웨스트에서 가장 큰 개인수영장입니다. 저 끝쪽에 다이빙보드가 있었고 그쪽의 수심은 9 피트입니다. 이곳의 물은 옛 훈제소빌딩에 있던 바닷물우물에서 가져다가 채워놓은 것입니다. 헨 자신이 수영장설계를 계획했는데 스페인 내전에 종군기자로 출전해야했기 때문에 수영장 완공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과 193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동안의 수영장건축을 풀린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헨이 스페인에서 돌아왔을땐 완공된 수영장으로 변해있었지만 자금초과에 시달렸던게 분명합니다. 그는 최종명세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돈으로 \$20,000 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헨은 자기 주머니에서 마지막 동전하나까지 다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며 풀린한테 말하기를 “흠.. 내 마지막

“센트도 가져가는게 어떻겠소?” 초록 기둥앞 유리밀에 놓여진 햄의 마지막 1센트를 보십시오.

Carriage House 안의 일층은 폴린에 의해 아파트로 개조되었고 이곳이 햄과 그의 4번째 부인, Mary 가 폴린이 사망한후, 이곳을 방문했을때 묵었던 곳입니다. 그들의 집은 쿠바에 있었지만 이곳을 자주 방문했고 마지막 방문은 1960년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이 건물은 저희 사무실과 서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갈곳은 고양이 분수대입니다.

Urinal(소변기)

“고양이”를 위한 분수대로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햄이 그의 고양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토록 한것입니다. 맨위에는 쿠바에서 들여온 스페니쉬 올리브 통이 있고 밑의 통같은것은 쿠바에서 온것은 아니고 Sloppy Joe's Bar에서 갖고온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식당 화장실에서 쓰이는 소변기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폴린이 장식용 타일을 붙여 그것을 예쁘게 치장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곳은 뒤쪽에 나있는 현관입니다. 재밌는 것은 고양이들도 이것이 소변기의 변형이라는것을 아는지 받아놓은 물은 안마시고 훌러내리는 물만 마신다고 합니다.

현관과 지하

1851년에 이 집이 에이사 티프트에 의해 지어졌을때, 이것(샘플로 하나가 놓여져있음)과 같은 석회암이 바로 이 자리에서 캐어져 집을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곳엔 진짜 지하실이 있습니다. 집밀으로 9피트 정도 내려갑니다. 지금은 그곳은 저장창고로 사용되고 비가와도 전혀 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이 실제로 해발 16피트의 구릉지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랬기에 우리도 이 집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투어는 끝납니다만, 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시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정원을 걸으셔도 좋습니다. 정원에서는 또한 하루에 3번씩 정원투어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원투어는 특이한 열대식물들과 그들이 어디서 들여온 것인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한에서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밍웨이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의 번역은 현재 코람 여행사 투어가이드로 활동중인 심명혜씨가 해밍웨이의 집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이해를 돋기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폴로리다 여행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koramtour.com
Tel : 954-755-1118
Fax: 954-346-2290